

우리나라 學術情報活動의 振興을 爲하여

— 더큐멘테이션의 必要性 —

李 春 熙

學術情報活動의 必要性

現代人은 하루만 新聞을 읽지 않아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그 만큼 自己가 處하고 있는 社會에 對하여 뒤떨어진 느낌을 갖게 된다. 確實히 우리들은 바쁜 時代에 살고 있다. 時時刻刻으로 變하고 發展하는 모든 社會活動에 따라가지 않으면 살수 없게 되었다. 남보다 먼저 알고 빨리 行動하는 사람이 勝利의 榮光을 차지한다.

특히 學問의 分野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日進月步하는 科學의 技術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學者, 專門家, 모든 技術部門에 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研究가 必要함은 勿論, 自己가 研究하고 있는 分野에 關하여 남들이 얼마만큼 研究해 놓았으며 또한 研究하고 있는가를 항상 알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卽 國內外的 學界動向에 對하여 敏感해야 하며, 그 方面의 情報를 適期에 얻지 않으면 안된다. 某大學에서 授與한 博士學位 論文이 나중에 알고 보니 海外에서 이미 數年前에 研究가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이야기는 듣기만해도 창피스러운 程度이다. 學問에 있어서의 後進性을 脫皮하려면은 무엇보다 積極的인 學術情報活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어느 日本文獻에서 읽은 한토막 이야기이다. 二次大戰中 南方에서 作戰하였던

美軍에게 正體不明의 病이 流行되어 큰苦痛을 받은 일이 있었다. 여러모로 調査한 結果 그것이 日本에서만 流行되는 恙虫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病에 對한 研究는 日本以外에서는 알아볼수 없었으므로 軍當局은 當惑하여 戰前에 日本으로부터 入手한 日本의 學術雜誌를 調査케 하고, 그 報告에 依하여 對策을 講究했다는 것이다. 이것도 學術情報活動의 重要性을 말해주는 한가지 例라 하겠다.

歐美諸國에 있어서의 學術情報가 얼마나 重要視되고 있는가는 저 有名한 P. B 레포오트만 보더라도 알수있다. 獨逸을 占領한 美英兩國軍의 調査團이 무엇보다도 獨逸의 科學技術에 關한 情報를 捕捉하는데 腐心하여, 實로 數十萬件이 넘는 項目과 5百萬 페이지에 達하는 龐大한 報告書를 作成한 것이었다. 이것은 美商務省 技術 써비스局에서 出版되었고, 그後 이 P. B 레포오트는 各國에서 重要な 資料로서 利用하게 되었다.

研究에 從事하는 學者나 專門家가 다른 사람들에 앞서 獨創的인 研究를 完成한다거나, 또는 그 研究의 成果를 世界學界에 널리 알려 研究의 프라이머리티를 確保할 수 있게 함은 모두 學術情報活動에 期待되는바 큰 것이다. 이와같은 活動의 不足은 研究者 個人에 不利할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國家的으로도 經濟上, 技術上의 損

失을 招來하게 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이다. 國內은 勿論, 國際의인 活動이 더욱 活潑해야 되겠으며, 海外의 學術情報를 얻어드리는데 國家는 그에 對한 文化政策을 樹立함에 있어 조금도 吝嗇해서는 아니 되겠다.

더큐멘테이션의 發展

原來 學術研究의 結果는 單行本의 形式으로 發表되었다. 그러나 모든 學問 特別 自然科學 및 그 技術이 急速度로 發達을 하게 된 近代社會에 있어서는 單行本만의 形式만으로는 도저히 時代의인 템포에 쫓아갈 수 없게 되었다. 執筆에서 印刷를 거쳐 單行本으로서의 出版을 하게 되기까지는 相當한 時間이 걸림으로 한 研究의 結果가 發表되었을 때는 이미 그보다 앞선 研究活動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十八世紀末부터 보다 速한 發表의 方法으로서 雜誌, 팜프렛, 紀要, 年報, 論文集 등의 形式이 登場하게 되었다. 印刷術의 發達과 아울러 驚異의인 近代科學의 發達은 資料의 洪水時代를 가져왔고 人類의 知的活動의 記錄은 年年 幾何學的으로 그 數가 增加되고 蓄積되어왔다. 資料의 氾濫은 우리에게 그것을 充分히 利用할 수 있는 時間的 餘裕를 許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自己가 求하는 特定한 資料 또는 事項이 어디에 散在되어 있는지조차도 알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같은 不便을 打開하는 方便으로서 이른바 더큐멘테이션(Documentation)이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活動이 나오게 되었다.

비브리오그래피(Bibliography)라는 말은 事實上 單行本을 主로 對象으로 하던 時代에 더 어울리는 말이었고, 오늘날과 같

이 各種의 印刷物은 勿論, 書寫, 寫眞, 필립, 音盤, 其他 知識의 傳達과 蓄積의 手段으로서 表現된 人間活動의 모든 記錄類를 對象으로 할때 그 概念이 바꾸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저 有名한 國際書誌機構(IIB=Institut International de Bibliographie)도 그 名稱을 國際더큐멘테이션連合(FID=Federation Internationale de Documentation)으로 變更하였다.

더큐멘테이션의 歷史는 비록 짧으나, 그것은 近者에 와서 驚異의인 發展을 하였다. 이와 같은 빠른 發展은 決코 一時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랜 歷史를 지니고 있는 書誌學이라는 母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더큐멘테이션은 書誌學의 延長이며, 넓은 意味에서 圖書館學의 一部分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큐멘테이션 領域에 있어서 主로 다루고 있는 內容을 보면 大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資料(情報源)의 探索, 調査, 分析, 評價.
2. 資料의 分類 및 目錄, 書誌作成
3. 抄錄
4. 索引
5. 資料의 複寫, 翻譯
6. 情報傳達의 方法

圖書館의 技能이 教育에 보다 重點을 두었다면, 더큐멘테이션은 情報의 速報에 그 生命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더큐멘테이션은 今日에 있어서 主로 自然科學部門의 資料를 다루고 있다는 點이 그 特徵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더큐멘테이션은 圖書館에 있어서의 教育的이며 敎養的인 面보다는 오히려 그 技術과 自然科學

의 知識과 素養이 보다 要求되는 것이다. 如何間에 兩者는 다같이 資料傳達의 媒介體라는 點에서 共通性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學術情報活動

學術情報活動이라는 말을 위에서 略述한바 더큐멘테이션의 意味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境遇는 昨年에 겨우 그 發足を 보게된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KORSTIC)가 學術情報活動의 嚆矢라 하겠다. 勿論 더큐멘테이션은 個人에서 團體, 機關, 國家나아가서는 國際의 規模까지 다 包含되는 것이겠지만은, 國家的인 見地에서 볼때 KORSTIC 以前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學術情報活動이란 全無하였다고 보아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大學이나 圖書館別로 極히 小規模의 自家的인 더큐멘테이션이라기 보다는 書誌의인 活動이 있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중 어느것도 特記할만한 것은 못된다. 그런대로 우리의 關心을 끄는 것을 생각하는데로 적어 보면 韓國研究院에서 發刊한 「韓國碩博士學位論文目錄; 1945—1990」 中央大學校 教育學科에서 나온 「韓國教育目錄; 1945—1959」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의 「韓國行政索引, 1961」 등을 들 수 있을 程度이다. 國立圖書館에서 繼續 發刊하고 있는 國立圖書館報는 將次 우리나라 國家書誌의 基礎가 되는 것으로 注目할만한 事業이라 하겠다. 아무튼 위의 索引·目錄들은 極히 部分的인 것들이며, 더큐멘테이션의 活動이라고 부르기에 는 너무도 貧弱하다.

本格的인 더큐멘테이션의 活動을 하게된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는 1962年1월에 發足하여 主로 外國에서 刊行되는 學術雜誌와 各國의 特許公報를 蒐集整理하고 그

情報를 國內 各大學, 研究團體에 提供함을 그 趣旨로 하고 있다. 아직 初創期에 있음으로 刮目할만한 成果는 내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活動에 學界의 期待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겠다. 同「센터」는 國庫補助로 運營되고 있으며, 選定한 外國 定期刊行物은 1,200種에 達한다고 한다. 情報活動의 生命은 迅速한데 있다. 하루 바빠 同事業이 本軌道에 올라 더큐멘테이션 센터로서의 使命과 技能을 充分히 發揮해 줄 것을 기다리는 마음 간절하다.

또한가져 우리나라 學術情報活動을 爲한 劃期的인 事業으로서 今年 2월부터 韓國圖書館協會에서 着手하고 있는 國內定期刊行物總索引事業을 들지 않을 수 없다. 本事業은 解放以後 우리나라에서 發刊된 定期刊行物을 總綱羅한 索引事業으로서 階段的으로 蒐集整理하여 發刊할 計劃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學術情報活動에 寄與함을 그 目的으로 하고 있다. 前記한바 KORSTIC이 外國의 定期刊行物을 爲主로 하고 있는데 比해 圖協의 事業은 國內의 定期刊行物을 그 對象으로 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라 하겠다.

KORSTIC 이나 圖協의 事業이 다 같이 初創期에 있음으로 그 成果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아무튼 이와같은 事業이 發足되었다는 事實만으로도 높이 評價되어야 할 줄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學術情報活動의 發展을 爲한 터전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와 같은 龐大한 事業을 앞으로 育成發展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檢討되어야 할 몇가지 小見을 들고자 한다.

첫째로는 事業의 統一性을 期해야 되겠다. Bibliography 나 Documentation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 統一性이라 하겠다. 統一性의 缺如는 時間의 浪費와 經濟的인 損失을 가져온다. 專門的인 技術을 總動員하여 가장 合理的이고 統一的인 方法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된다. 即 分類目錄, 索引, 抄錄等에 對한 規則과 方法이 全國的으로 統一되어 있어야만 보다 能率的이라 하겠다. 그것은 利用者를 爲해서도 똑 같은 말을 할수 있을 것이다. 一例를 들어 甲이 發刊한 索引과 乙이 發刊한 索引에 使用된 主題名이 또는 分類記號가 全혀 다를 경우 利用者는 그에 對하여 各各 알고 있지 않으면 아니됨으로 그 만큼 時間의 負擔을 갖게된다. 이와같은 技術上의 統一을 實現하고, 주어진 豫算의 充分한 活用과 資料購入等 많은 重復을 避하기 爲해서는 全國的으로 統合된 機關에서 事業을 主管해야 될것으로 생각한다. 現在 圖協이나 KORSTIC에서 다루고 있는 資料는 서로 달리하고 있지만 그 方法에 있어서는 大同小異한것이라고 볼수있을것이다. 萬一 이러한 事業들을 어느 한 圖書館에서 統合主管한다고 하면은 우선 資料蒐集에 있어서 重復을 避할수 있음으로 豫算上 많은 利點이 있을 것이며, 위에서 말한바 技術上의 統一을 期함에 있어서도 매우 容易할것이라고 믿어진다.

둘째로는 學術情報活動을 爲한 基礎作業이 必要하다는 點이다. 不幸히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일이 全혀 이루어 지지 못하고있다.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나라

라의 國家書誌(National Bibliography)와 各圖書館이 所藏하고 있는 藏書의 綜合目錄(Union Catalog)이라고 할수 있겠다. 其他 政府刊行物目錄, 逐次刊行物目錄 그 索引等 모두 時急한 것들이다. 이러한 基本的인 일들이 早速히 이루어져야 될것이며, 그 基礎위에서 다시 分析되고 細部的인 活動이 展開됨으로서, 보다 健全한 學術情報活動으로 發展해 나갈것이다.

셋째로는 專門職에 對한 法的인 保障이 必要하다는 點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現實情으로 보아서는 能力있는 專門職을 確保할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 才幹있고 能力있는 일꾼들은 機會만 있으면 社會的으로도 別로 認識을 받지 못하고 있는 圖書館員으로부터 떠날려고 한다. 學術情報活動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充分한 活動과 技能을 十分發揮하려면은 그 일을 遂行해 나갈수있는 專門職의 確保가 切實히 要求되는 것이다.

끝으로 이와같은 事業들은, 國家의 永續的인 文化政策으로서 樹立되고 遂行되어 나가야 할것이며, 必要한 豫算의 뒷받침과 積極的인 後援 없이는 所期の 目的을 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先進國家에서는 外國에 駐在하고 있는 本國의 大使館 또는 領事館에도 專門職을 派遣하여 그 나라의 學術情報를 蒐集하는데 盡力하고 있다. 政府의 보다 積極的인 支援과 協調가 要望되며, 우리나라 學術의 後進性을 克服하는 길은 學術情報活動의 振興에서부터 시작 되어야 할것이다.